



정부는 식품업계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확대하여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

<보도 주요 내용>

6월 27일(목) 아시아투데이 「빨라지는 물가 인상주기, ‘3차 충격파’ 가능성 제기」 기사에서 “**①**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유가·곡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, **②**원재료 가격이 2년여만에 최대 42.7% 치솟았고, **③**그간 정부에서 기업을 위한 지원 없이 가격 인상 자제 등을 요구했다.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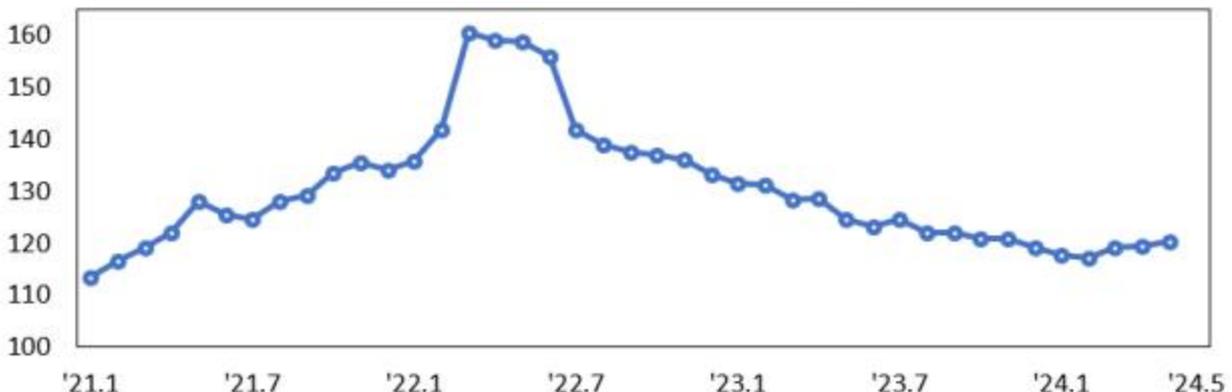
① 기사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곡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,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.

국제 식품 원재료 가격은 현재 하락 추세로 2022~23년 기간 상승한 것은 경기침체 때문이 아닌, 러-우 전쟁 장기화와 주산지 작황 부진 때문입니다. 식량농업기구(FAO)에 따르면, 2024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.9% 상승(120.4포인트)하였으나, 러-우 전쟁 영향으로 인해 고점이었던 2022년 3월(160.3포인트) 대비 24.9%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고 있습니다.

* 세계식량가격지수('14~'16 평균=100):

(**'22.3**)160.3<고점> → ('22.12)133.3 → ('23.6)123.1 → (12) 119.2 → (**'24.5**)120.4

< 세계 식량가격지수 추이('21.1~) >



② 일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불했던 14가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최대 42.7% 치솟았고, 원재료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,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.

곡물·원당 등 식품업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식품 원재료 가격은 주산지 작황 안정 등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,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.

- * 밀(\$/톤): (평년)227 → **(22.5)419<고점>** → (12)275 → ('23.6)243 → (12)225 → **(24.6.25)199**
- 대두(\$/톤): (평년)463 → **(22.6)621<고점>** → (12)542 → ('23.6)526 → (12)482 → **(24.6.25)427**
- 옥수수(\$/톤): (평년)226 → **(22.5)311<고점>** → (12)256 → ('23.6)242 → (12)185 → **(24.6.25)168**
- 원당(\$/톤): (평년)256 → ('22.12)441 → ('23.6)544 → **(11)602<고점>** → (12)490 → **(24.6.25)421**

국내 농축산물 가격도 수급상황이 안정화되면서 3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- * 농축산물 물가상승률(전월비/전년동월비, %) : ('24.1) 3.1/8.7 → (2) 2.9/12.8 → **(3) 0.6/13.1** → (4) △2.5/12.0 → **(5) △1.5/9.8**

실제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5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.0% 상승하며, 4개월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- * 소비자물가 상승률(%): **(22.7) 6.3<고점>** → ('24.1) 2.8 → (2) 3.1 → (4) 2.9 → **(5) 2.7**
- 가공식품물가 상승률(%): **(22.12) 10.0<고점>** → ('24.1) 3.2 → (2) 1.9 → (4) 1.6 → **(5) 2.0**

③ 정부가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고, 별다른 지원도 없이 업계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했으나,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.

정부는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*, 커피·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(10%) 면세,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(10%p↑)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, 제분업계 경영안정자금(4,500억원 규모), 식품기업 원료매입(968억원)·시설현대화(90억원) 자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* 코코아가공품, 커피·오렌지농축액 등 신규 7품목 포함 연말까지 총 37개 원재료에 적용

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, 식품업계와 협력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수 (044-201-2111)
		담당자	사무관	정명희 (044-201-2123)

